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자장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시설한 까닭은?

# 계율이 신라 헌법, 교단 정비 국력 배가

## 1. '호법'과 '정율'의 정체성

자장(576-655, 590-658, 608-677?)은 신라의 대표적 고승이었다. 그의 입적 직후 적지 않은 전기가 지어졌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 민지(閔漬)가 지은 『오대산일월장사사적』에는 『몽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 이하 「第一祖師傳」)가 실려 있는데 그 전기로 「원효 소찬(자장)본전」[元曉所撰(慈藏)本傳]을 들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원효가 지었던 「자장조사전」으로 추정되지만 현존하지 않아 확정할 수 없다. 또 일연의 『삼국유사』 「탑상」편의 「가섭불연좌석」(迦葉佛에宴坐石)에 언급된 「자장전」이 원효 저작인지도 확정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당나라 도선의 『속고승전』(645) 권24의 「당신라국대승통서자장전」(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이하 「당자장전」)과 일연의 『삼국유사』 「의례」의 「자장정율」(慈藏定律)조가 있다. 일연의 「자장정율」 조는 도선의 「당자장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장이 신라로 돌아온 뒤의 말년 행적까지 담고 있어 온전한 전기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전기들을 통해 자장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속고승전』에서 언급한 경율(經律)의 소(疏) 10여권 중 『사본을갈마사기』와 『십승을목차기』, 『아미타경소』, 『아미타경의기』(일본승 良忠의 『法華讀私記』에 신라 靑林寺 慈藏疏이라고 인용됨), 『관행법』(1권) 등이 현존하지 않아 그

### 신라불교 섭론계 및 유식계 대 사상가 일연은 자장을 계율확정 인물로 규정

의 인식들을 알아보는 어렵다. 자장은 계율과 미타계통의 저술을 남겼고, 당에서 돌아온 뒤 분황사에서 『삼대승론』을 강론하였다. 그리고 황룡사에서 『보살계본』(유가보살계본)을 7일 7야 강의하자 하늘에서 감로가 내렸고, 운무가 강당을 덮었다는 대목을 보면 신라 불교 조전기의 섭론계 및 구역 유식계에 입각한 사상가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당나라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주요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연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장은 불교의 전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때문에 도선은 그의 전기를 담은 「당고승전」에서 그의 소속을 「명율(明律)편이 아니라 호법(護法)편에 분속시켰다. 이것은 자장을 호법보살(護法菩薩)이라고 총평(總評)한 동시대인 도선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후대의 일연은 자장을 정율 즉 계율을 확정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나라 도선과 고려 일연의 자장 인식이 동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연은 “이에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이를 제도하였다. 또 (그가) 태어났던 집을 고쳐서 원녕사(元寧寺)라고 하였다. 낙성회를 열어 잡화(雜花) 만계(萬偈)를 강의하였더니 52녀(女)가 감응하여 나타나 (그의 강의를) 듣고 증명하였다. 문인들로 하여금 그 숫자대로 나무를 심게



통도사 금강계단. 당시 승려는 학문을 닦고 보름마다 계율을 설법했다. 승려 과실을 경계하고 불경·불상 모시는 것을 항례로 삼으니 백성 대부분이 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하여 이 이적을 표시하고 지식수(知識樹)라 불렀다”라고 적고 있다. 불교 공인 뒤 신라 불교는 아직 출가자를 위한 기본 위와 법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으로 건너가 출가한 원광이나 안함과 자장, 해공과 혜숙, 원효와 의상 등과 같은 신라 초기들의 사승(師承)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출가 위와 법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평왕은 진(陳)나라에서 귀국한(602) 지명(智明)의 계행을 존경하여 대덕(大德)으로 삼았다. 지명은 『사본을갈마사기』라는 저술을 지었으므로 그 당시 계본과 갈마문이 유통되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장은 당에서 돌아오기 이전까지 승려들의 득도(得度)를 위한 계단이 시설과 수계작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연은 바로 이 점이 착목하여 자장의 정체성을 신라불교 승려들의 출가 위와 법식을 확정된 정율(定律)에 두었다.

## 2. 복식의 제정과 교단의 정비

자장의 전기들은 그의 탄생을 뱃다에 상응하여 운색하고 있다. “자장의 아버지는 진골 소관 무림(武林)이었다. 그에게 후사가 없자 천부관음(千部觀音)을 조상(造像)하여 아들 하나 낳기를 바랐다. 꿈에 별이 떨어져 [星墜受胎] 어머니의 품안으로 들어오더니 곧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석가세존과 생일이 한 날(4월 8일)이라 이름을 선종량(善宗郎)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령한 의지가 맑고 지혜로우며 문장력이 풍부해졌으나 속세의 취미에 물들지 않아서 처자를 버리고 전원을 회사하여 원녕사(유학 이후 조성?)로 만들었다. 홀로 깊은 곳에 지내면서 이리와 호랑이도 피하지 않았다. 고골관(枯骨觀)을 닦으면서 게으른 마음을 쫓기 위하여 망을 만들어 주위를 가시터널로 둘러치고 그 속에 알몸으로 앉았다. 움직이면 곧 가시에 찔리도록 하고, 머리는 들보에 매달아 혼미한 정신을 없앴.” 자장이 매진했던 고골관은 젊은 시절 치열했던 그의 수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장이 출가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1) 부모를 일찍 여읜 뒤 출가했다는 설과 2) 평의 눈물을 보고 출가했다는 설이 있다. 전자는 당나라에 전해져 기록된 설이다. 후자는 『황룡사찰주본기』의 기록된 설이다. 거기에 따르면

자장이 어렸을 때 살생을 즐겨하였는데, 하루는 매를 놓아 꿩을 잡았는데 꿩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출가하였다고 한다. 때마침 조정에 태보(台輔, 재상)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진골 출신이었던 25세의 자장은 물망에 올라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왕이 교지를 내리기를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였다. 자장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 자라리 하루 동안 계행을 지키다 죽을 지언정 [吾寧一日持戒而死, 계행을 깨뜨리고 백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不願百年破戒而生].”

자장의 말을 전해 들은 선덕여왕은 비로소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여러 바위 틈새에 깊숙이 숨어

### 사냥서 ‘평 눈물’ 보고 출가 전해져 당에서 돌아와 승려 기강 세울 결심

살다 보니 아무도 양식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이때 이상한 새가 과실을 물어다가 바쳤으므로 손으로 받아먹었다. 얼마 뒤 꿈에는 천인이 와서 오계를 주므로 그제야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니 황음의 사녀들이 다투어 와서 계를 받았다.” 이후 자장은 변방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며 서쪽으로 유학하여 문인 승실 등 10여명과 당나라 정량산(오대산)을 찾았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은 자장에게 범계(梵僞)를 준 뒤, ‘선덕왕은 찰리종으로서 일찍이 부처님의 수기(授記)를 받은 인연이 있으므로 나라를 화평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태화지변(太和池邊)에서 신인(神人)을 만났는데 신인은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도록 일러주었다. 또 중남산 원향(圓香)선사에게서 ‘황룡사 구층탑 건립의 권유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는 자장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승려들의 득도를 위한 계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조정에서 의문하여 말하였다. ‘불교가 들어온 지 비록 오래 되었으나 불법을 지키고 받드는 규범이나 의례가 없으니 기강을 세워 잘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다.’ 왕에게 아뢰자 왕은 칙령으로 자장을 대국통으로 삼고, 승려의 모든 규칙을 승통에 맡겨 주관하게 하였다. (중략) 승니(僧尼) 오부로 하여금 각기 옛 학문을 더 닦고 보름마다 계율을 설법

하고, 겨울 봄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지계와 금계를 알게 하며, 사람을 두어 관리하고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순찰하는 사람을 두어 시골의 사찰을 두루 돌아 살피게 하고, 승려의 과실을 경계하고 독려하며, 불경과 불상을 엄숙히 모시는 것을 항례로 삼으니 한 시대의 호법이 이때에 성대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시 나라 사람들은 10중 8, 9명이 계를 받았으며 머리 깎고 불법을 청하는 이가 해마다 늘었다.

## 3. 황룡사탑 조성과 금강계단 시설

신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법식을 배워 승관제(僧官制)를 두었다. 진흥왕 11년에 안장(安藏)법사를 대서성(大書省)으로 삼고 이듬해에는 고구려의 해량(海亮)을 국통(僧統)으로 삼았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국통이란 왕이 승려를 우대하기 위한 영전적(榮典的) 칭호였으며, 승관제 역시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았다. 반면 자장이 귀국하면서부터는 승관제가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 내용적으로 정비되었다. 신라 중고기 말엽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보다 유연한 대외 관계가 요청되었다. 이때의 분위기를 도선은 “왕은 자장이 대국에서 경양(景仰) 받고 정교(正敎)를 널리 유지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강리(綱理)가 아니고서는 숙청(肅淸)할 수 없다고 하여 자장을 대국통으로 명하고 왕분사(王芬寺, 芬皇寺)에 거주하도록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신라 왕실은 자장의 건의에 힘입어 진덕왕 3년(649)에 중국의 의관(衣冠)을 입고, 이듬해에는 당나라 연호(年號)인 영휘(永暉)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나라는 중국에 조빙(朝聘)할 때 마다 그 반열이 번국(蕃國)의 왕자리에 있게 했다. 이것은 자장이 당시 국제간의 외교적 상례인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관계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취했던 결과로 이해된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아 대국통이 되었다. 당시 대국통은 단순한 승관제 지위인 ‘영전적’ 칭호를 넘어서 ‘비상직(非常職)’으로서 자리매김되었다. 비록 비상직이기는 했지만 불교계의 전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불교 교단을 정비할 수 있었다. 자장은 통도사에 계단을 구축하여 출가자 및 일반 백성의 수계까지 이루어 내었다. 자장은 안함의 불연국토설을 계승하여 이 땅을 부처와 인연이 있던 나라로 설정하였다. 『황룡사찰주본기』 이렇게 적고 있다.

“(선덕)왕 12년 계묘세에 본국으로 돌아오자 하여 (중)남산 원향선사에게 인사하였다.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그대 나라의 황룡사를 보았는데, 구층 술도와(率堵波)를 세우면 해동의 제국(諸國)이 모두 그대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고 하였다. 자장은 이 말을 간직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결국 조정의 결정에 의해 그는 황룡사 구층탑을 조성하고 안함 이래의 신라 불국토사상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불사들은 진종설과 골품제의 확립과 함께 왕족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진평왕 이후 신라 중고기말엽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출현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 불교의 본유(本有)적 자긍심과 종교적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자장은 통도사를 창건하였고 그곳에 금강계단을 조성하였다. 『속고승전』 「당자장전」은 이렇게 적고 있다.

“(그는) ‘사탐 심어 개’를 지었다. 하나씩 세울 때마다 온 나라가 함께 숭앙하였다. 자장이 ‘만일 사탐을 조성함에 신령함이 있을진대 기이한 상사를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발원하니 문득 건발(巾鉢) 속의 시리를 감득하였다.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시주를 바친 것이 산처럼 쌓였다. (대중들은) 즉시 계를 받고, 선을 행함이 더욱 많았다.” 이들 중 대표적 인물인 통도사이며 금강계단이다. 금강계단을 세운 시기와 형태는 도선이 남산 율종을 창종하고 『계단도경』을 간행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금강계

### 금강계단에서 백성 수계 거행 금강계단은 신라 규범의 상징

단은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하면 도선의 『계단도경』이 제시한 양식과 구조에 의하여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장의 경제적 노력은 선덕여왕이 승하할 때까지 이어져 신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자장의 정신적 지원자였던 선덕여왕이 타계하고 난 뒤부터 그는 정치계 및 불교계의 주류로부터 벗어나 태백산과 오대산을 순례하면서 문수신앙의 보급과 실천에 힘쓰는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연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김영태, 『삼국유사소전의 신라불교사상연구』(1979).
-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민족사, 1992).
- 고영선, 『한국불학사』(연기사, 2005).
- 고영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세안타올

샤워타올

수세미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염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활력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환경유익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